

■ 태국 무혈 쿠데타 3일째

美 “쿠데타 인정 못해…민정 복귀해야”

스노 대변인 “쿠데타 세력과는 FTA 협상 안해”

미국은 20일 탁신 차나와 총리를 실각시킨 태국 쿠데타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난하고 조속한 민정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간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군사협력 및 무역관계 개선이 ‘위태롭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번 쿠데

타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스노 대변인은 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주의 회복 약속을 빨리 이행해주길 희망한다”면서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태국의 민주질서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히, 쿠데타 세력과는 FTA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군사 쿠데타는 정당성이 없는 것

이라며 “태국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빠른 시일내 실시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시는 또 미국의 태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재검토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조기에 헌정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의 쿠데타 세력 지도자들은 향후 2주내에 새 총리를 선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헝가리, 3일째 반정부 시위

1만5천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20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집결, 쥘리차니 총리의 퇴진과 대체 정부 구성을 위한 새로운 선거 실시, 개혁 조치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푸미폰 국왕 “군부 쿠데타 승인”

■ 태국은 지금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20일 TV 성명을 통해 군부 쿠데타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쿠데타 지도부인 ‘민주 개혁 평의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모든 국영 및 민영 TV를 통해 “푸미폰 국왕이 이날 오후 모든 국영 및 민영 TV를 통해 “민주 개혁 평의회” 의장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탁신 총리는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부정축재를 했으며, 권력을 남용해 국가 사정 기관에 개입했을 뿐더러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에 부여한 권력을 거두어들인다”고 국왕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손터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임시헌법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그 기간 안에 새 의회가 구성되고 새 총리도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콕=연합뉴스

“올뎀 총리였는데…나는 실업자”

■ 탁신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차나와 태국 총리는 “(뉴욕에) 올 때는 총리였지만 돌아갈 때는 실업자”가 됐다

지난 1월 자신과 가족 소유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탈세 혐의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탁신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었으나 전날 발생한 무혈 쿠데타로 권좌에서 밀려났다.

쿠데타를 주도한 손터 분야겟글린 육군 총사령관이 새 총리감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후보자들 중 한명으로 지목된 프리디야손 데바쿨라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제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내가 후보자인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태국 일간 내이션은 프리디야손 총재가 차기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콕=연합뉴스

“일장기 계양시 기립 강요는 위헌”

日 법원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도 부당” 판결

일본의 새 총리로 취임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예국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의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제창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도쿄(東京)지법은 21일 도쿄도립 고교 등의 교직원 400명이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제창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을 강제하는 직무명령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가운데 음악 교사에 대해서는 피아노로 국가를 연주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 2003년 10월 도교육장 명의

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제창을 실시하면서 각 교장의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상 책임을 물도록 한 통달을 보냈다.

각 교장은 이 통달에 따른 직무명령을 통해 국기 기립과 국가 제창을 강요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 50여개국

‘핵 금지조약’ 비준 촉구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호주, 네덜란드를 비롯한 50여개국 대표들은 20일 청원서를 내고 북한, 미국 등 10개국에 대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도입된 CTBT에는 176개국이 서명하고 135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나 핵 무기 생산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이 비준을 할 경우에만 발효되도록 돼 있다.

이들 44개국중 34개국이 비준했으며 미국, 중국, 콜롬비아, 북한,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10개국은 비준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차베스 “부시는 악마” 맹비난

유엔총회 연설 “유엔도 개혁해야”

국제적인 반미진영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장에서 예의 독설을 과시하며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을 ‘악마’ ‘거짓말장자’ ‘독재자’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을 지칭, “악마가 여제 여기 왔었다”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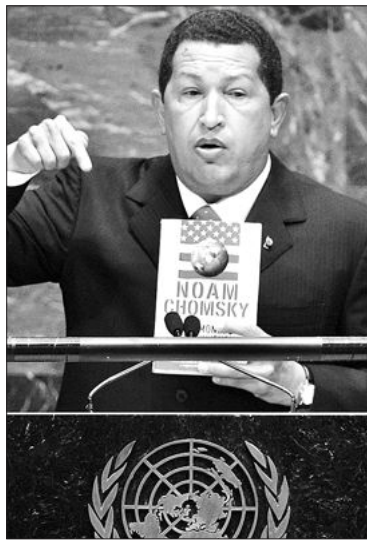
지난주 이란과 함께 반미 동맹을 맺은 차베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세계 인민들을 지배, 착취, 약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미국 민과 세계에 우리의 머리위에 드리워진 칼과도 같은 이러한 위협을 중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의 현 시스템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부도덕한 거부권 행사가 최근 한달여에 걸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가능케했다며 유엔의 개혁을 촉구했다.

미국 대표단의 의석은 기록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또 그가 연설 하는 동안 의석에서



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부시 대통령을 ‘악마’라고 할 때는 일부가 박수를 치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日, ‘총련’ 본부에

잘린 손가락 배달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중앙본부에 협박문과 함께 사람의 잘린 새끼 손가락이 들어 있는 봉투가 배달됐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전했다.

협박문에는 ‘천벌’이라는 글자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고 일본에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총련측은 밝혔다.

서만술 총련 의장을 수신인으로 한 봉투에는 가고시마(鹿兒島) 현 소인이 적혀 있었으며 손가락은 거즈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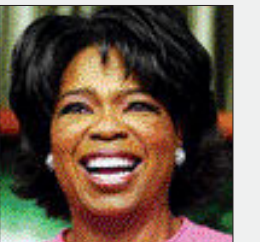
총련측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일본 경찰에 신고, 수사를 요청했다.

/도쿄=연합뉴스

오프라 윈프리를 美 대통령으로?

윈프리, 대통령 출마 권유자에 고소 경고

미국 TV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사진)가 최근 자신을 2008년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60대 백인 남성에게 초상권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윈프리의 변호사인 제리 글로버는 캔자스 시티의 전직 교사인 패트릭 크로우(69)에게 서한을 보내 그가 발간한 ‘오프라를 대통령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비롯, 웹사이트(oprah08.net), 단추, 범퍼 스티커, T-셔츠에 윈프리의 이름과 이미지가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칫 윈프리가 이 선거 캠페인을 지지 내지는 후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버는 “윈프리는 당신에게 자기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크로우에게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바꾸고 윈프리의 이름이나 이미지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own Down Mollu' (다운다운몰류유통)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store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Korea Travel' (한국여행)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in and detailed travel information.